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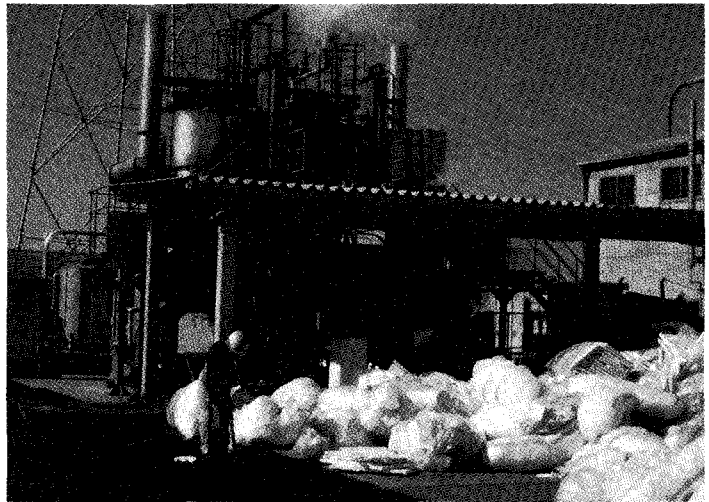
일본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세 계적으로 재활용 활동이 잘 이뤄지는 나라를 들라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은 스티로폼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규제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원 재순환정책의 일환으로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e), 에너지 재활용(Thermo Recycle),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폐 플라스틱의 처리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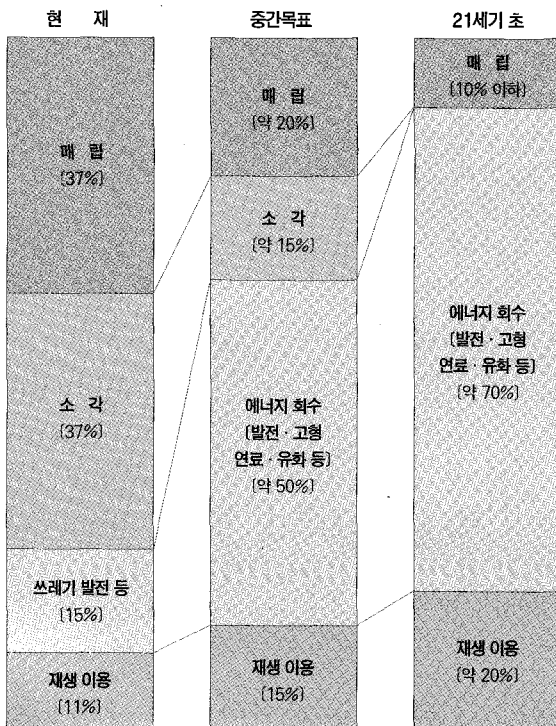
일본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효과 등의 측면에서 물질 재활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 이물질의 제거, 이종(異種) 플라스틱의 분리, 오염 제거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에너지



및 자원의 추가라는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 재활용 이외에 다른 제도 대책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폐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95년 현재 폐플라스틱중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전체의 약 26%이며 나머지는 단순 소각이나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1세기 초의 재활용 목표를 90%로 하고 매립 처분은 10%이하로 잡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본의 폐플라스틱 처리 목표



* 출처: 일본 통산성 기초화학과 작성

물질 재활용 정책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폐플라스틱 회수시스템의 확립 및 재생품 수요의 확대를 도모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질 재활용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단재(端材) 등의 재생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각종 사용한 폐플라스틱, 예를 들면 포장용기, 자동차, 가전 등의 부품, 부재의 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재활용 정책

폐플라스틱은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계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폐기물계의 처리는 가능한 회수하여 제

이번 호부터 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을 소개합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편집자註

이용을 촉진하고 회수가 곤란한 것은 쓰레기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써 회수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쓰레기 소각 발전을 추진한다.
- 2)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도시는 광역처리의 확대 등으로 가능한 쓰레기 소각 발전을 추진한다.
- 3) 보다 유용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공급 등의 열이용을 적극 추진한다.
- 4) 많은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산업폐기물계 폐플라스틱과 함께 소각하여 고효율의 에너지 이용을 도모한다.

매립처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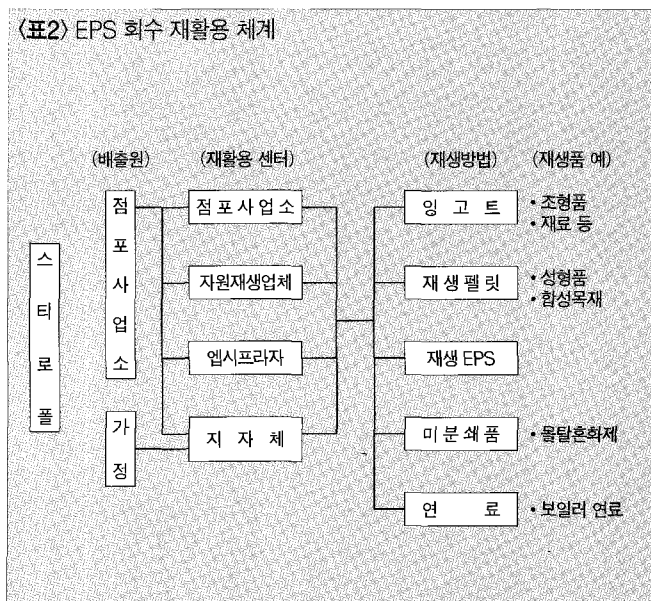
위와 같은 재활용의 촉진으로 최종적으로는 매립 처분량을 10%이하로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목표치는 엄격히 관리되어 그 달성을 위해 지자체, 관련업체, 지역 주민 등은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포장용기 재활용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은 포장용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용기 포장 재활용법'을 '95년 6월 제정하였고 현재 동법 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지자체 및 사업자가 포장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위한 협력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의무로서 소비자는 분리배출, 지자체는 분리 회수, 사업자는 회수된 재활용품을 자체 또는 지정법인이나 재활용 사업자에 위탁하여 재생품화하는 것을 골자라고 있다. 재활용 대상은 캔, 병, 플라스틱 등의 포장용기이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

〈표2〉 EPS 회수 재활용 체계



는 판매하는 상품에 특정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특정 용기 제조 사업자, 특정 포장 이용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쓰레기 발생량중 포장용기 폐기물은 용적비로 57.5%, 중량비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용기포장 폐기물은 식료품, 음료, 일용품, 포장지, 포장재로 세분된다.

